

# PEOPLE

2025년 3월 24일 월요일

## 2025년 세계 물의 날



### 전남도, 효율적 물 관리 '최우수'

전남도는 지난 21일 환경부 주관으로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세계 물의 날' 기념식에서 물 관리 분야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았다.

전남도는 지역 주민, 물 관련 기관이 서로 협력해 효과적 물 관리 정책을 추진, 가뭄과 집중호우에 따른 물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댐 주변 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공감대 형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전남도는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홍수 등 물 관련 재해의 대응과 수질보전, 수자원의 효율적 공급을 위해 '지속가능한 통합 물 관리 기본 조례'를 제정해 도 차원의 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광주도시공사

#### 염주체육관서 물 절약 캠페인

광주도시공사는 '세계 물의 날'을 맞아 관리·운영 중인 염주실내수영장, 염주실내빙상장, 염주골프센터에서 물 절약 캠페인을 펼쳤다고 23일 밝혔다.

'세계 물의 날'은 유엔(UN)이 전 세계적으로 식수 부족과 수질 오염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3월 22일로 지정해 기념하는 날이다.

이번 캠페인에서 공사는 염주체육관을 찾은 시민들에게 '세계 물의 날' 기념 양치컵을 나눠 주며 물 절약의 중요성을 알렸다.

물을 틀어놓고 30초 동안 양치하면 약 6ℓ의 물이 사용되지만 양치컵을 활용하면 최대 5ℓ를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도 물 절약에 동참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김승남 사장은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양동민 기자 yang00@



###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 광주천 일대 환경정화 활동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최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임직원과 함께 광주천 일대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ESG 경영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사회적 책임 활동 일환으로 마련됐다.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광주천 산책로를 정비하는 데 중점을 뒀다.

GICON은 지난 2022년 ESG 경영 선언문을 발표한 이후 '2050 광주광역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다양한 환경보호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정화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쓰담쓰담' 무등산 환경정화 활동과 나눔 바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 “여성 의견이 도정 중요 정책 결정 반영 노력”

## 전남여성단체협의회, 여성 권익 증진 앞장 다짐

### 회장 이·취임식...자립준비청년에게 장학금 전달

전남도는 전남도여성단체협의회가 21일 목포 상그리아호텔에서 제29대·30대 회장 이취임식을 진행, 전남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고 밝혔다.

이취임식에선 김영록 전남도지사, 전남도의회 이광일 부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시군 여성단체회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해 30대 임정심 신임회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임정심 회장은 대한어머니회전남연합회장, 전남도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전남도동부지역도정자문회의 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여성의 사회 참여와 권익 증진에 앞장선 여성 지도자다.

임정심 회장은 취임사에서 "임기 동안 사명감을 갖고 다양한 문제를 함께 고민하면서 여성의 의견이 중요한 정책 결정에 반영되도록 협력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그동안 전남여성단체협의회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온 전임 회장님들의 노력이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 협의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임한 최두례 회장은 지난 2년 동안 전남도여성단체협의회 활성화에 헌신한 공로로 전남도지사 감사패와 전남도여성단체협의회 공로패를 받았다.

이취임식에선 전남 여성의 권익 증진 의지를 다짐하는 한편, 자립준비청년 2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앞으로 전남여성단체협의회가 지역 청년의 꿈을 응원하겠다는 다짐도 했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도여성단체협의회가 여성의 지위 신장과 도정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을 보내준 덕분에 전남이 발전하고 있다"며 "앞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1일 목포 상그리아호텔에서 열린 '전라남도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이·취임식'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로도 여성이 더 큰 미래를 꿈꾸는 평등하고 행복한 전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남도여성단체협의회는 1967년 창립, 현재 15단체 약 8만 회원이 여성의 사회 참여와 권익 증진, 양성 평등사회 실현 등 지역사회 발전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 방안 간담회, 전국 최초 자립준비청년 멘토·멘티사업(안부살피기, 반찬나눔, 가정방문 등)을 통해 지역 리더로서 역할을 톡톡히 했다. 박정렬 기자 hobul@gwangnam.co.kr

# 김이강 서구청장 “탄핵 촉구 바람 담아 달리기 완주”

## ‘100km 달리기’ 100% 민주주의의 열망 의미...민주화 사적지 경유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달리기(런닝)에 나서 눈길을 끈다.

23일 서구에 따르면 김이강 서구청장은 지난 22~23일 '탄핵촉구 광주 RUN 100'을 진행했다.

이는 광주 전역 100km를 달리며 100% 민주주의를 열망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기일이 늦어지며 시민들의 답답함과 불안감이 커지면서 느슨한 탄핵시계에 경종을 울리고 무너진 민생에 힘써야 하는 시민들의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을 전하고자 마

련했다. 김 청장은 첫 날에 북구 운동동 국립5·18민주묘지~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서구 풍암동까지(59km) 구간을 뛰었다. 둘째 날은 서구 풍암동~광주시청~5·18기념공원(41km) 등 광주지역 민주화와 관련된 사적지를 거치며 총 100km를 뛰었다.

김 청장의 탄핵 촉구 달리기를 마친한 시민들도 곳곳에서 '마음으로 함께 뛰겠다', '건강한 모습으로 완주해 시민들의 열망을 전해주길 바란다' 등의 응원을 전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많이 지치고 힘들었지만 탄핵 촉구"를 향한 뜨거운 열망으로 끝까지 완주했다. 이는 헌법이 명령하고 시민의 외침이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땀으로 일군 민주주의를 짓고 있는 자들에 대한 분노를 감출 길이 없다. 역사의 심판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다"며 "민주주의를 지키고 헌법을 수호하고 무너진 민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달렸다. 100% 민주주의, 완전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청장은 지난 22일 제19차 광주시민총괄기대회에 참석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즉각 탄핵 인용을 촉구했고, 지난 11일부터 서구청사 앞에서 퇴근길 피켓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은 지난 22~23일 '탄핵촉구 광주 RUN 100'을 진행했다.

# 해남군, 2년 연속 희망나눔캠페인 '우수기관'

## 해남군은 최근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주관한 희망2025나눔캠페인 및 2024년 연중 모금 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인증패를 전달받았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시한 희망 2025나눔캠페인에서 목표액 2억4800만원을 180% 초과한 4억4600만원을 모금했다. 또한 연중 모금 금액도 5억9000만원에서 7억3000만원으로 크게 향상했다.

이번 성과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해남군의 기업, 기관, 단체, 군민들의 적극적인 기부로 함께 이룬 결과로 의미를 더하고 있다. 군은 연중 기부문화와 조성고 연말연시 기부 릴레이를 안정적 지역복지사업 추진을 뒷받침하고 있다.

김동국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은 "해남군의 모금 실적을 높이 평가한다"며 "공동모

## 김이강 서구청장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달리기(런닝)에 나서 눈길을 끈다.

김 청장은 첫 날에 북구 운동동 국립5·18민주묘지~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서구 풍암동까지(59km) 구간을 뛰었다. 둘째 날은 서구 풍암동~광주시청~5·18기념공원(41km) 등 광주지역 민주화와 관련된 사적지를 거치며 총 100km를 뛰었다.

김 청장의 탄핵 촉구 달리기를 마친한 시민들도 곳곳에서 '마음으로 함께 뛰겠다', '건강한 모습으로 완주해 시민들의 열망을 전해주길 바란다' 등의 응원을 전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많이 지치고 힘들었지만 탄핵 촉구"를 향한 뜨거운 열망으로 끝까지 완주했다. 이는 헌법이 명령하고 시민의 외침이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땀으로 일군 민주주의를 짓고 있는 자들에 대한 분노를 감출 길이 없다. 역사의 심판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다"며 "민주주의를 지키고 헌법을 수호하고 무너진 민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달렸다. 100% 민주주의, 완전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청장은 지난 22일 제19차 광주시민총괄기대회에 참석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즉각 탄핵 인용을 촉구했고, 지난 11일부터 서구청사 앞에서 퇴근길 피켓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 한전KDN '미래인재 발굴단' 출범...채용 혁신 노력

## 한전KDN은 최근 나주 본사 교육관에서 '2025년 한전KDN 미래인재발굴단' 출범식을 가졌다고 23일 밝혔다.

'한전KDN 미래인재발굴단'은 정부의 직무 중심 인사·조직관리 방향에 발맞춰 직무 기술서 고도화, 채용설명회 전문 인력 운영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사람 중심의 인사관리에

서 사람·직무 중심 인사관리의 변화를 선도하게 된다.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상세한 채용 가이드를 제공함으로써 지원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맞춤형 채용을 추진하게 된다.

미래인재발굴단은 4개 본부별 4인으로 구성돼 있으며 직무별 직원 집중 인터뷰를 통해 전력산업에 필요한 최근형 핵심역량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무기술서 고도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한전KDN은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채용설명회 전문 인력 Pool 구성과 전문성 강화 교육으로 한전KDN의 채용 과정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

##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채용 전 과정의 소통강화로 공간 채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한전KDN은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프로세스 확보와 실력과 역량 중심의 인재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한전KDN 관계사는 "미래인재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채용 혁신은 지속 가능한 경영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미래인재발굴단을 통해 직무 중심의 공정 채용을 더욱 강화하고 지원자들이 직무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송훈 기자 photo25@



첨단2동, 민생 약속의 희망나무 심기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는 제80회 식목일을 맞아 21일 첨단2동 생태광장 일원에서 지역사회단체, 어린이집 원아, 주민 등 200여명이 참여해 은목서 등 1700여주를 심었다. 사진제공=광주시 광산구



광주시북구새마을협의회 '힘찬동행, 동전의 기적' 광주시북구새마을협의회(회장 장희수)는 최근 취약계층 사업비 마련 동전모으기 사업인 '힘찬동행, 동전의 기적'을 진행했다. 사업을 통해 총 228만1870원이 모였고 북구 각 동으로 분배해 사업비로 활용할 예정이다. 사진제공=광주북구새마을회